

# 1970년대 이상적 여기자 상의 형성

최이숙(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수료)

## 들어가며

1919년 이각경이 매일신보사에 입사한 것에서부터 따지면, 한국에서 여성들이 저널리즘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9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여성언론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듯하다. 1990년대 후반이후 저널리즘 연구에 페미니즘 이론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도입되면서, 언론계의 진출 및 승진과정에서 성적 차이(sex difference)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뉴스 및 미디어 생산과정 및 문화에 대해 성인지적(gender-sensitive)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sup>1)</sup>. 90년대 들어 여성언론인을 둘러싼 조직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찰이 증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언론인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식민지 시기 여성언론인의 지위 및 활동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박용규(1998)의 연구, 그리고 여성들의 언론계 진출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정진석(1995)의 연구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여성언론인들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조직적 시선, 그리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적 조직적 문화 속에서 여성언론인들의 대응양상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거의 부재하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그 집단의 자기인식은 이전시대의 역사적 유제와 해당시기 그 집단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이 접합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여성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정의 그리고 이들에게 부여된 정체성은 지금의 사회에서 현재의 담론지형과 이전 세대 여성언론인들에게 대한 인식 및 이들이 남겨준 역사적 유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 산물이다. 현재의 여성언론인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다소는 기원적일지라도 이전시기의 여성언론인들의 삶과 이들이 생활해왔던 사회적 직업적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 하에 본 연구는 여성기자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내의 집단적 규범형들이 논의되었던 1970년대 여성언론인에 대한 이상적 모델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 대상에 대한 선택된 긍정적 재현인 한 대상의 이상형(ideal type)이 구성되는 과정은 그 시대의 사회적 규범과 대상을 둘러싼 권력관계가 체현되어 있다(Hall 1997) 여성언론인에 대한

1)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경희(1998) 뉴스 생산과정에서의 여성소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Vol 14(1), 김훈순·이규원(2004), TV 뉴스 여성 앵커들의 직업 인식과 방송사 조직의 성차별적 관행 프로그램/텍스트 10호, 유선영·김경희(2003) 미디어 조직과 성차별-여성언론인 주류화 방안, 한국언론재단등이 있다.

이상형은 결국 1970년대라는 사회적 조건 그리고 그 시기의 담론적 공간에서 여성이자 기자인 이들 집단을 둘러싸고 작동하였던 다양한 담론들 그리고 그 속에서 부여된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서로 경합하고 협상하는 가운데서 형성된 산물이다. 이렇게 볼 때, 1970년대 여성언론인의 이상형을 살펴보는 일은 한국 사회의 그리고 당시의 뉴스를 및 언론계의 젠더적인 성격(gendered character)을 드러내는 작업으로서 의미를 갖을 것이다.

## 연구 방법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언론인들의 이상적인 모델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사회가 여성언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당시의 매스 미디어는 이들 집단을 어떻게 재현하였는가? 1970년대 한국 언론계(동료 남성기자들, 언론학자)는 여성언론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여성언론인들에 대해 요구하였던 상(像)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여성언론인들 자신들 또는 동료 여성언론인 집단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스스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라는 이 3가지 서로 다른 수준의 질문에 답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의 담론 지형 속에서 실질적으로 3가지 서로 다른 수준의 인식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당시의 신문(조선일보)에서, 그리고 언론계에서 발행하였던 기자협회보와 신문평론에서 그리고 여성언론인들이 스스로 발행한 잡지(여성저널)에서 여성언론인 관련 기사 및 글들을 모두 수집하였다. 조선일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여성언론인을 다루고 있던 기사 조선일보 23개, 기자협회보(1970. 1.1~1979.3.31)에 여성기자들에 대한 글 및 여성기자들이 쓴 글 105편, 신문평론에 실렸던 글 9편, 1970년부터 73년까지 발행된 여성저널 1권에서 4권에 수록된 글 전체를 대상으로 당시 여성기자들이 처해있던 사회적·언론사내의 지위 및 이들의 재현양상 그리고 이상화된 여성언론인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당시의 여성기자들의 사회적 조건 및 이들을 둘러싼 담론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1970년~79년까지 발행된 이화여대학보와 관련 문헌 연구를 참고하였다.

## 1970년대 한국의 언론, 기자

1970년대 여성언론인에게 부여되었던 사회적 시선은 어떻게 구축되었으며 그 속에서 여성언론인의 이념형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질문에 앞서 먼저 당시 여성언론인들이 생활공간인 언론계의 상황 즉 국가와 언론과의 관계·언론정책, 이에 대한 언론사의 대응, 그리고 언론인들의 노동조건·의식상태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1970년대는 '병영적 통치체제'라고 불리울만큼 성장위주의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부작용과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을 특징으로 한다. 언론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언론은 당시의 사회적 모순 속에서 불거져나왔던 저항의 흐름들을 통제하고 당시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데올로기 수단으로 여겨졌다. 1970년대의 언론정책은 억압적인 언론의 통제 정책과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신문산업의 기업화 정책의 강화-신문산업의 대형화-로 나뉘볼 수 있다. 정부주도로 진행된 3개 통신사의 통합작업, 사이비기자의 일소와 프레스 카드의 발급·부실신문사의 정리를 골자로 한 1971년 언론자율정화조치의 실시, 1974년 동아일보 광고사태등이 억압적인 방식으로 신문산업에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결과 일간지의 수는 감소하였고, 1도 1사의 원칙 및 지방지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지의 통폐합이 줄을 이었다. 이와 함께, 주 48면의 증면, 인쇄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 지원등 신문산업의 기업적 성장을 위한 특혜를 제공하였다. 정부의 보조 속에 이뤄진 신문산업의 기업화 과정에서 1970년대 우리나라 신문들의 수익구조에서 광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구독료를 앞서가기 시작하였다(주동환 1994, 김해식 1994).

전북인, 전북적인 언론정책은 언론기관들에게는 기각들에 대한 폭행과 연행, 그리고 선연친, 않은 해직과 같은 억압적인 모습과 임금인상 및 기자촌의 건립등의 처우 개선의 양면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1970년대 기자협회보에 실렸던 1면 헤드라인 및 사설에 실린 기사들은 대체적으로 정부로부터의 언론의 자유, 언론사 통폐합의 바람 속에서 언론인의 직업안정성의 확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사이비 기자 척결의 문제로 요약된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 언론자유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수렴되었다. 1970년대까지 한국 기자 사회의 이념형으로 존재하였던 지사적 언론인으로서의 자기 위치, 그리고 기관원의 편집국 상주 및 기자에 대한 폭행등 기본적인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언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시 기자집단은 1971년과 74년 두차례에 걸쳐 언론자유 수호를 선언하게 된다. 언론자유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74년 동아일보·한국일보등 몇몇 언론사에서 언론인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정권의 강압에 맞서 언론의 자율성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 진행되었지만, 언론인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실패로 돌아간다. 1974년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언론자유 수호운동은 정부의 탄압과 각 언론사주의 정부와의 타협으로 1975년 언론자유수호운동에 참여하였다. 언론들은 무력으로 해결되리라. 1970년대 중반이후, 권위정당의 독점권을 한층 강화한다. 1975년 12월 복간된 이후의 기자협회의 활동은 다소 위축되었고, 기자협회보의 임금인상, 하기 휴가와 같은 언론인의 복지 관련 내용으로 국한되는 모습을 보인다.

언론자유수호 운동과 함께 기자집단의 최대의 화두는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이었다. 1974년 기자협회 조사에 의하면 언론인들의 평균임금은 약 70,000원 선으로 은행원등 다른 화이트 컬러노동자들의 그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신문산업의 기업화의 과정에서 신문사 수익구조의 개선·임금인상을 위한 기자협회의 노력·70년대 중반이후 기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조치의 결과 기자들의 급료는 70년대 내내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임금인상보다는 학자금 융자, 휴가의 실시등 다른 처우 개선문제로 화두가 넓혀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기자들의 처우는 70년대 초반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 1970년대 대졸 여성들의 사회적 조건

1970년대 여성언론인들은 대학을 졸업한 중산층 출신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집단에 대한 재현양상 및 이념형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1970년대 대졸 여성들의 사회활동 및 결혼생활을 둘러싼 담론 지형과 그 실제 양상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결과, 가계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의 수는 70년대 내내 증가하였다(김영화 1993). 하지만, 대학의 문이 넓어졌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1970년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에 의하면(표경희 1979, 표경희·안덕자 1971, 오인호·표경희 1974), 당시의 여대생 및 여성대졸자들이 대부분 졸업이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알맞은 직장부족, 취업을 위한 정보부족·준비부족으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진출하였던 직종은 교사·사무직원·비서·은행원등 몇몇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표경희 안덕자 1971, 오인호·표경희 1974, 표경희 1979).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대졸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이분법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여성의 사회진출은 여성에게 적합한 몇몇 직종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남성생계부양자/가정의 책임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이분법이 작동하는 가운데, 여성의 취업과 진학등 졸업이후의 사회활동은 대학졸업과 결혼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다리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 중반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도니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sup>3)</sup> 대다수의 남학생들이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취업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자식의 양육이 마무리 40~50대’로 대답한 학생이 41%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여성의 사회활동보다는 양육자로서 그녀들의 위치를 중시함으로 알 수 있었다. 사회활동보다는 가정생활을 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은 1970년대 중반까지 여대생 및 대졸여성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1971년 취업기간을 묻는 여대생 인식 조사에서 결혼 전까지가 40% 였던 반면, 능력이 있는 한 계속 하겠다는 의견은 28.2%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70년대 중반까지 일정정도 그 유지되었으며, 70년대 말에 이르러 결혼과 상관없이 능력이 있는한 지속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1970년대 대졸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다소 소극적인 인식은 당시 여성들이 직장생활에서 맞닥드려야 했던 상황 속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즉 유교적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확립된 성별분업 및 공사 분리의 담론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직장에서

2) 주위사람들의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이효재·이동원의 1971년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취업에 대해 남자 친구의 29%만이 찬성(반대 18%)을 보인 것과는 달리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반응(부49.9%, 모 65.5%)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취업에 대한 남학생들의 인식조사, 이대학보 1974. 3.15. 3면

가정·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74년에 발표된 한 연구(표경희·오인호 1974)에 의하면 미혼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에 불만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나타나듯이 은행권은 물론 대부분의 회사에서 임금·승진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는 물론, 대부분의 직장에서 결혼 후 퇴직을 입사 조건으로 또는 사원내규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결혼은 사회생활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개발독재 체제하의 여성정책이 윤락여성에 대한 보호정책 또는 국가발전을 위한 동원 정책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현대적인 의미의 남녀 평등 및 여성의 장기근속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입안 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황정미 2001)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장애요인이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여성주의 이론의 발달 및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국가적·사회적인 수준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은 공론화 조차 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대졸 여성들이 각종 불평등에 대해서 취할 수 있던 유일한 대책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거나 또는 직장을 떠나는 일이었다.

## 70년대 여성언론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조건

언론인 및 매스컴 관련 직업은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사회진출 경로 중의 하나였다. 1970년대 들어 여성언론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61년 신문사와 통신사를 통틀어 30여명에 불과하였던 여기자의 수는 1970년대 들어서 3배정도 들어 약 100여명에 육박하였다. 여성언론인의 비율 역시 1970년 3%에서 1980년에는 3.6%에 이르렀다(정진석 1995). 특히 은행원·교사등 다소 틀에 박힌 안정적인 일로 여겨졌던 직종과는 달리, 언론관련 직업은 70년대 대졸 여성들에게 '보다 자유롭고 사회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sup>4)</sup>. 1971년 실시한 여기자 클럽 조사에 의하면 당시의 1970년대 초반의 여성언론인들은 '자유로운 직업' 또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자직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이만갑 1971). 전원 공채를 통해 선발되는 언론계의 인력수급 방식은 당시의 여성들에게 여성이 선택할 수 있던 다른 직업에 대해 '능력에 따른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몇 안되는 직업'<sup>5)</sup>이었기 때문에 여대생들이 선택하는 직종중의 하나였던 것 같다. 1970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자들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 출신의 대졸여성으로 경력 5년 이하의 20대 미혼 여성기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71년 이후 여성기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여대생들이 대부분 중산층 출신이었다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여성기자들의 짧은 기자생활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비판의 글이 70년대 후반에도 발견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은 지속되는 듯하다.

4) 이화여대 학보 1976. 9.

5) 좌담회-여기자를 말한다. 신문평론, 1977. 9. 1

70년대 여성기자들은 70년대 중반까지 매우 열악하였던 기자들의 노동환경과 복지수준의 가장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70년 조사에 의하면 여성기자들의 월급은 3만원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여성기자들의 초봉은 남성기자의 그것에 비해 대개의 경우, 1만원정도 낮았으며(장명수 1970). 부장급 여기자가 4~5명에 불과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기자들에 비해 승진기회에서 제약을 받았다. 70년대에 내내 기자사회의 화두가 면세점 이하 또는 낮은 임금수준이었던 것과는 달리, 1971년 조사에서 여성의 직장생활에서 괴로운 점 중 봉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은 편이었으며, 여성기자들의 글에서 역시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은 다른 승진이나 부서배치, 여성복지시설의 부재 성차별적인 문화에 따른 불만에 비해 많이 표출되지는 않았다. 이는 여성대학생들의 취업 동기에서 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다.

1970년대 초반의 여성기자들은 사회부·정치부등의 기자들이 선망하는 부서보다는 편집실 내에서 다소 주변적인 부서인 문화부·부녀부·주말판등에 배치되었다.<sup>6)</sup> 능력에 따라 평가받으며 다른 직종에 비해 사회적 통념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기자직을 선택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뉴스룸 내에서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다르다는 인식은 이와 같은 부서배치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기자들이 선망하는 부서인 사회부의 경우, ‘여성은 야근을 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 및 상대적으로 거친 출입처등은 여성기자들의 사회부 배치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문화부·부녀부로의 배치는 여성언론인들이 뉴스룸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문화부 및 부녀부에서 주로 담당하였던 가정면의 경우, 신문사 내의 고도(孤島)라고 불릴 만큼 편집국에서 소외된 영역<sup>7)</sup>이었으며, ‘부녀부 기자들도 프레스 카드가 나오나<sup>8)</sup>’는 농담이 오갈 정도로 편집국 내의 여성기자들의 지위는 다소 주변적이었다. 설사 사회부·정치부·경제부등 소위 신문사 내의 ‘노른자위’ 부서에 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성기자들의 배타적인 문화와 남성중심적인 출입처 분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책무가 중시되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직업여성들이 겪어야했던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여성기자들에게 역시 기자생활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비로 다가왔다.

최근까지 직장에서도 모두 둘사이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으나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 때문에 국장님이나 사장님을 만나보았는데 모두들 그냥 출근하도록 권장하시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나는 여자라고해서 결혼한 후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활동을 해보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그래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社(사)에서 허락하는 한 계속 출근할 생각입니다. <인터뷰: 같은 부에서 인연 맺은 부부기자, 이대녕, 신호정 커플, 기자협회보 1972. 9/22>

6) 1974년에 실시된 기자의식조사에 의하면 기자들이 희망하는 부서로는 사회부가 가장 많았으며 정치부, 경제부가 그 뒤를 이었다.

7) 이수영, 민들레의 한, 여성저널 3호 p 127

8) 김영분, 통이 되려는 노력, 여성저널 3호 p 129

기자집단이 다른 사회영역에 비해 다소 진보적으로 여겨졌지만, 여성의 기자생활이 결혼·출산과 동시에 종료된다는 인식은 1974년 동아일보 여성기자들의 ‘결혼후 근속제한 내규 철폐’요청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뉴스를 내에서 존재하였던 남녀 차별에 대해 여성기자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차별적인 노동환경과 이에 따른 근속연수의 제한등을 지적하는 문제제기가 여성저널·여성기자 클럽의 세미나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사회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개념이 미비하고, 여성주의 이론 및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서구의 여성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여성친화적인 노동환경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이 전개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자협회보에 여성관련 문제가 거의 이슈화 되지 않은 점은 이를 방증하는 데, 여성기자들의 집단적인 활동 역시 여성의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졌다기 보다는 ‘언론자유수호투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 같다.

## ‘여성’으로서의 기자-여성기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1970년대 말까지 기자직은 딸을 둔 부모들이 자녀에게 권해주는 직업은 아니었다. 1970년대 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당시 여대생들에게 부모들이 희망했던 직종에서 언론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였다.<sup>10)</sup> 여기자클럽 조사에서도 꽤 많은 수의 여성기자들이 처음 언론계에 진출하였을 때 가족 및 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특히 ‘기자는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여성다움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탐탁치 않아했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자는 와일드하고 건방지고 올드미스로 가는 직행코스’라는 한 여성기자의 고백<sup>11)</sup>에서 드러나듯, 사회적으로 기자직은 여성이 하기에는 사나운 일<sup>12)</sup>이면서 공격적인 직업<sup>13)</sup>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여성기자들은 기이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때로는 여성이라는 점으로 인해 혜택을 보기도 했지만, 때로는 남성중심적인 기자-취재원 관계로 인해 여성기자들의 취재활동의 커다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그날 총알 쏘듯 하던 취재에 여유를 갖고 세부적인 뒷이야기까지 들으며 만족스러운 취재를 했다. 이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얻는 이익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데스크’에서 남성기자들에게 경제계 거물급 사장들을 ‘인터뷰’하라고 하면 모두들 기피해버린 다. 왜냐하면 시원스럽게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도 시원스럽게 이야기도 안해주기 때문이

9) 기자협회보 1974년 6월 28일자 1면

10) 이 당시 이화여대 재학생의 부모들의 희망직종은 교사직이 43.3%, 연구직이 4.2%, 비서직이 2.9%였다.

11) 김선애, 젊은날의 이야기. 기자협회보 1972. 11.24

12) 홍경숙, 지방지 여기자: 성장의 날도 머지 않았다. 여성저널 3호

13) 좌담회-여기자를 말한다. 신문평론, 1977. 9. 1

다. 그런데 여성인 나의 경우는 처음만나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한번만 만나면 내가 생각해도 이상스러울 정도로 쉽게 만나주고 전화만 걸면 친절히 응해오는 것이다. (중략)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번만 보아도 쉽게 기억하는 이점이 있는데다가 처음 내가 경제계에 출입할 때는 강한 인상을 주도록 동똥한 체구에 빨간 ‘코트’를 입고 다녔는데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 <이수영, 민들레의 한, 여성저널 3호 p124>

“풍차를 향해 돌격하는 ‘동키호테’처럼 나는 우스꽝스러운 용맹으로 갑옷을 지어입고 신문기자란 직업에 뛰어들었다. (중략). 그런데 ‘한번 뛰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우리사회의 인습은 여자가 여건 똑똑하다 싶으면 ‘건방지다’고 몰아세우고 얌전하다 싶으면 ‘무능하다’고 깎아 내리는 데 서슴치 않았다. 더구나 대구의 신문사상 최초의 여기자라는 점이 더욱 처신을 어렵게 만들었다. (중략) 이러한 인스의 벽은 취재활동을 이만저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었다. 가령 비밀장소에서의 비밀회의에 잠입해 들어갔을 경우 남자기자에게는 ‘좀 모른체 해줄 수 없느냐고’ 사뭇 애걸조로 나오는 취재원이 여자에게는 ‘취재끼같이--’ 어떻게 하며 아주 재수 없어 한다.” <홍춘미, 불투명하게 투명하게, 여성저널 3호 p 133-134, 1973>

여성 기자의 수가 여전히 적었던 상황에서 여성이 기사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듯 하다. 1970년대 조선일보를 보면 여성기자를 다룬 23편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기사중 65%에 해당하는 15편이 해외의 여성기자들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은 한국사회에서 여성기자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3%에 해당하는 기사가 조선일보 출신 기자인 최은희씨 관련(출판기념회·가족동향등) 기사인 반면, 70년대 활동하였던 여성들의 취재 및 직업적인 행위(예를 들면 여성기자들의 모임등) 관련 기사는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단 9편에 불과하였다. 해외 여성을 다룬 기사들 중의 많은 수가 해외 토픽성 기사였는데, ‘여성 기자 바지입어 법원서 쫓겨나’, ‘정부는 여기자였다·망구스씨 재혼’등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기자들이 남성중심적 문화 속에서 겪는 사건이나 여성들의 가족 및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글들이 많았다. 주류 미디어의 이와 같은 보도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사회의 여성언론인 인식양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류 미디어에서의 여성언론인의 재현 양상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조선일보에 나타난 이와 같은 보도경향은 당시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드러내는 몇가지 단서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언론인들이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서구의 초기 여성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으로서 인식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1970년대 여성언론인 관련 기사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토픽이나 가십성의 기사는-그것이 해외사레라고 하더라도-여전히 여성언론인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남성의 영역에 진출한 기인한 존재라는 구경거리로서 위치지워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 여성성에 대한 이중적 해석-남성의 눈으로 본 여성언론인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시의 여성기자들은 여성기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 속에서 남성중심적인 언론계의 분위기 속에서 편집실 내에서 주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편집실 및 언론계에서 남성의 영역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여성기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들이 ‘여성’ 기자라는 점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었으며 여성기자들이 기자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요구한 바는 무엇이었을까? 1970년부터 73년까지 발행된 여기자 클럽 기관지인 ‘여성저널’과 신문평론에 게재된 남성기자 및 편집장들·언론학자들의 여성언론인에 대한 글을 보면 당시의 언론계가 보냈던 여성언론인에 대한 시선 및 그녀들에게 요청하였던 바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대표적인 언론인인 최석채와 천관우는 여성저널 창간호 특집 ‘내가 바라는 여기자상’에서 다음과 같이 여기자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남녀 동권의 원리대로 말한다면, 뭐 여기자라고 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자질이 있을 까닭이 없겠고 어디까지나 기자 일반에게 공통되는 직업인으로서의 지식, 몸가짐이 소망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이상론이고, 현실적으로는 여기자일 수밖에 없다 (중략) 기자이기 이전에 여성이라야 옳은가, 여성이기 이전에 기자라야 옳은가는 인식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로서는 젊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문기자이기 이전에 인간이 돼야한다’고. 이 말을 여기자에게 적용시킨다면 똑같은 이치로 ‘기자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여성이란 것을 잊지 말라’고 여기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 짧은 매수의 원고에 굳이 긴말은 하지 않겠으나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 못할 중성기자는 비록 그능력이 뛰어나고 활동이 출중해도 한때의 각광일뿐, 참다운 의미에서의 훌륭한 여기자가 되기는 힘들 줄 안다. 나의 좁은 전문이나마 내가 보고 듣고 한많은 경험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하략)”<sup>14)</sup>

“여기자는 인기가 있다. 편집국 행정을 맡아 보던 때 겪었던 일이지만, 여기자를 새로 배치하겠다고 하면 어느 부에서든지 대환영이었다. (중략) 그러나, 그 환영에도 내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령 숙직이 잦은 부서 같으면 여기자의 배치는 대환영인데, ‘숙직요원수+알파’의 ‘알파’로 여기자를 보내달라 한다. (중략) 여기자도 기자다. 훌륭한 여기자란 우선 훌륭한 기자이어야 한다. 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왔다. (중략) 바람직한 여기자상은 어떤 것일까. (중략) 첫째로 남자가 하는 일로 여자가 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대신, 여자가 하는 일로 남자가 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훌륭한 여기자라면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맡은 일을 여자로서 훌륭히 치루어 내는 기자이겠다. 둘째로 여자도 남자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여자가 기준이 되지 않고 그저 한 기자로서 맡은 일이라면 그것을 한 기자로서 훌륭히 치루어 내는 것이 훌륭한 여기자의 또 한 측면이겠다. 실상, 기자로서의 사명감, 특기, 활동력… 이 모든 것은 여기자라 해서 다를 수는 없지 않은 가. 여자로서 잘하고 기자 일반으로서 잘해야한다면 여기자에게 이중의 기대를 거느냐 할지도 모르나 이치는 그렇지 않다. 남자기자도 기자일반으로서 잘하고 여자가 못하는 일도 잘 해야되니까.(하략)”<sup>15)</sup>

14) 최석채, 부드럽고 상냥한 여성의 천품을. 여성저널 창간호. 1970 p 15

15) 천관우, 여자일과 기자일 함께 치러내야. 여성저널 창간호. 1970, p37

당시 언론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글에서 암시하는 바람직한 여기자 상은 여성들의 여성성-생물학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섬세한 부드러움 등-을 저널리스트로서의 직업적 책임감과 조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석채는 글에서 “부드럽고 상냥한 것이 여성의 타고난 天稟(천품)이라면 이와 같은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여성다운 여성’이 여기자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여기자 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성기자들의 중성기자들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 일반적으 서구에서 여성기자들이 뉴스룸에서 성공하기 위해 취하였던 그리고 당시의 여성기자들이 취하였을지도 모르는 ‘한명의 남성기자(one of the boy)’ 전략(Melin-Higgins 2004, Steiner 1998)에 대한 강한 거부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성별분업(gender division of labor)에 대한 고정관념을 흔드는 다소 공세적인 여성기자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와 같은 태도는 남성의 세계에서 이상화된 여성상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석채의 여기자상은 전통적인

현모양처 또는 현부(賢婦)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여성기자에게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석채의 글이 전통적인 여성성(femininity)에 대한 찬양이라면, 천관우의 글은 현실 기자사회에서 생물학적 여성(femaleness) 및 그녀들에게 부여된 자연적 특성으로서의 여성성(femininity)에 대한 현실적인 시선을 그대로 보여준다. 남성적인 영역에 진출하여 전통적인 기자사회, 취재를 위해선 숙직과 야근이 빈번하고 그리고 동료기자들 또는 취재원과의 음주 문화가 발달한 기자사회에서 이질적일 수 밖에 없는 여성기자들이 기자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여자로서의 일과 기자로서의 일을 모두 완벽하게 치러낼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명심해야할 것은 다른 남성 동료들이나 각급 부장 및 국장들에게 자신이 여성(female)이라는 사실을 인식치 못하도록 즉 여성은 기자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결혼과 동시에 그만둘 사람이라는 인식을 상기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여성성은 남성들의 그것보다 약한 어떤 것, 공적영역인 사회생활에 부적합한 무엇으로 인식되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극복해야할 또는 내세우지 말아야할 그 무엇으로 여겨진다. 뉴스룸 내에서 형성된 여성성에 대한 이러한 시선은 당시 편집국내에 만연하였던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경찰서·사건현장과 같이 출입처가 험한 사회부에 여성을 배치하지 않거나,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존재로서 여성기자를 바라봤던 남성 동료들의 돈키호테적인 태도와도 연결된다.

이상적인 여성기자의 모습에서 공존하는 찬양되는 것으로서 그리고 여성기자들이 지켜야할 덕목으로서 여성성, 불편하고 결핍된 것으로서의 여성성은 서로 대립되는 것일까? 이와 같은 여성기자들에 대한 남성기자들의 다소 복잡한 태도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또는 유보적인 남성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현실화되는 가운데, 공적 영역에 진입한 여성들에게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의 수호를 주장하면서 여성들의 책임을 여전히 전통적인 영역에 제한함으로써, 여성의 진출이후 사회적·직업적인 관례에 대한 이들의 도전을 제한코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적인 봉건적인 가치관과 남성중심적 직업적 가치가 융합되어 뉴스생산이라는 맥락에서 여성성에 대한 양가적인 해석 그리고 그에 기반하여 모순적으로 구축된 여성기자의 이미지가 남성들이 구축해 놓은 이상적 모델 속에 투영되어 있다.

## 젠더화된 이분법을 넘어서는 개척자, 슈퍼우먼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불리우는 전문직 분야에 진출한 여성들은 그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Dryburgh 1998). Dryburgh에 의하면 전문직 집의 지배적인 문화 그 속에서의 의례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자기

위험적인 이미지...인 형성되며, 남성과 영역의 성격들은 능력 있고 남성기질에

부여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직업적으로도 능력있는 여성으로 위치짓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위

험적인 이미지...인 형성되며, 남성과 영역의 성격들은 능력 있고 남성기질에

이 언론계에서 여성기자들에게 속에서 여성언론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위치지우고자 했을까? 당시

하였는가? 요구하였던 이중적인 여성성에 대해 여성기자들은 과연 어떻게 수용했

는 유일하게 기고한 모윤숙은 여성저널 창간호 '내가 바라는 여기자' 특집에서 여성으로서

으로 옳은 비판을 솔직담백하게 여성가자들에게 "말뚫하고 주저앉은 이 나라 여성의 대변자요 동반자

활동한 선배 기자로서 초기의 기사화"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갖추 것을 주장한다. 즉 1930년대

것을 요구한다. 모윤숙의 이와 여성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대변자이자 계몽자로서 활동해줄

는 사람들의 독자 인식 속에 같은 요구는 지방지 여성기자들의 의식 및 여성-가정면을 제작하

면대적으로 말하는 여성주의적 일정정도 투영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여기서의 계몽이 과연 한

성기자들은 뉴스생산 문화 및 계몽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19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여

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해방론자로 규정되는 것

로맨티시스트들은 심심하면 '복어와 경찰과 여자는 때릴수록 부드

구한다. 얻어맞아 부드러워진 여자를 그들은 무엇에 쓰려고 하

어와 여자'운운하는 선배들 틈바구니에서 나의 말한마디 한마디는

men Lib)'의 구호처럼 들릴 염려가 크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

로운 남성을 창조해보는 것도 꽤 많은 아이디어가 아닐지" <홍일

회보, 1977년 또는 1978년 기사임.. 날짜 찾아보기>

소개되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평등권에 기반한 여성운동이 가시화되지

사상이 여전히 남아있던 당시 한국사회의 조건 속에서 그리고

있었던 조건 속에서, 남성중심적인 뉴스 생산문화 및 사회문화에 대한

반면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보에 실린 여성언론인들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및

여성언론인들에게 '여성'이라는 의미는 직업인이자 전문직 기자로서

나 극복되어야할 특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서구에서 남성의

들 또는 여성 언론인 집단이 '여성'이라는 굴레에 대해 취했던 자세와

“내 출입처인 법원의 로  
러워진다'면서 내용의  
는 것일까? (중략) '복어  
자칫하면 '우먼리브(Wo  
면 Women Rib으로 새  
점 법원 출입기, 기자협

여성주의 이론이 아직  
않았으며, 유교적 남존여비  
뉴스룸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비판 있어 여성언론인들은 전  
여성저널이나 기자협회  
주장을 분석하면, 당시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되기  
영역에 진출한 전문직 여성

마찬가지로 1970년대 한국의 여성기자들 역시 뉴스룸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성’으로서 보다는 ‘기자’로서 인식되기를 바란다 (Lumsden 1995).<sup>16)</sup> 여기자 클럽 회장을 하였던 박현서는 ‘신문과 기자와 자세와-대기자상을 위한 소고’라는 글에서 여기자에게 붙여진 ‘여성’이라는 꼬리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여기자 상이란 따로 있을까? 기자 활동에 분야별은 있어도 성별은 없다. 다만 편이상 그 기자가 여자 이기 때문에 여기자라고 통칭할 뿐이다. 현대란 직장에서 직능에 따라 능력과 실적이 평가될 뿐이지 성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물며 기자에게 있어서야 그 능력의 평가만이 문제지 구태어 남녀를 갈라서 말꼬릴 잡을 이유가 없다. 그것엔 오직 개인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여기자이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말이 오르내리게 된다면 일단 그것은 오직 여기자 스스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끝까지 버티어 나갈 자기 발전을 위해 좋을 것이다.”<sup>17)</sup>

박현서는 이 글에서 여성기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기자직에 걸맞는 ‘능력’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뉴스룸 내에서 ‘여성’이라는 점이 운위되는 것은 여성기자의 일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뉴스룸 내에서 여성기자가 구경거리(spectacle)가 여겨지거나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여성들의 활동이 제약되고, 제약된 활동으로 인해 여성기자의 활동이 ‘여성이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식의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기자들 스스로의 자질과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직에 진출한 여성들이 조직내에서 사회내에서의 젠더 관계가 자신들의 직업경력(career)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모습 (Jorgenson 2002) 속에서 당시 여성언론인들이 상정하였던 이상적 언론인들이 한국전 종군기자로서 풀리처 상을 탔던 히긴스나 미국 최초의 경제지 기자인 실비아 포터와 같이 전통적인 젠더 관념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었다는 점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불식시키고 편집국내에서 자리를 잡아야한다는 요청은 여성기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육아에 따른 여성기자들의 조로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20년 경력의 여성기자인 전경화는 여성저널 3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직업의 여성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여기자는 50-60% 早老(조로)하고 마는 경향임을 통감하게 된다. 이는 여성을 위해서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못된다. 여성들이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제약을 받는 것은 틀리지 않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여성의 정신적인 소극성과 退嬰(퇴영)성과 노력, 외욕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여기자들이 맡아 하는 일에서부터 남성기자와는 분야가 다

16) 여기서 전제해야할 부분은 여성언론인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통된 관심사와 단일한 정체성을 지녔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성언론인 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주장 및 반복적으로 이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통해 당시 여성언론인 집단이 자신들을 어떻게 위치 짓고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7) 박현서, 신문과 기자와 자세와-대기자 상을 위한 소고, 여성저널 3호 p14~15

른 사도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부에 보다 많이 진출해야하겠고, 문화, 부녀, 어느 부에  
서라도 여기자 스스로가 과감성을 발휘하고 전문화로 시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했다  
<전경화, 여기자의 수명-선구적 여기자의 길은 고되다, 여성저널 3호 p17>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에 진출한 여성들이 자신을 능력있는 전문가로  
조직문화에 적응한 사람으로 그리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로서 위치짓는  
양상 (Jorgenson 2002)이 발견되는 데 1970년대 여성기자들이 스스로 구축한 이념형 역시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즉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이상형을 구조적 젠더 불평등을 넘어선  
선각자이자 슈퍼우먼으로 구성해내고 있다. 개인 능력에 대한 강조는 당시 여성기자들의  
기자로서의 이념형은 당시의 남성중심적인 뉴스룸 문화에서 여성다움에 대한 찬양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이라는 점을 드러내지 말 것을 강조하였던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었던  
지배적인 여성기자에 대한 인식·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적 수용과 응전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성의 시선에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구축된 여성다움, 그리고  
여성의 일상 대한 대안적인 해석의 틀인 여성주의이론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남녀간의 차이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차별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에서 여성 기자들이  
직면해야했던 다양한 불평등-육아휴직등의 복지제도의 미비-의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은  
모색되지 않는다. 그 대신 여성기자들의 개인적인 해결이 강조된다. 이는 어쩌면 여성들의 집단적  
행동이나 저항의 조직화가 쉽지 않았을 당시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념형의 구성과 해결방식은  
당연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즉 여성들 스스로를 언론사 조직에 적합하고 능력있는 존재로  
투사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에 융화된 존재로 위치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을 대신하여

1970년대 이상적인 여성기자상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부장제 하의 성별분업 담론, 그리고  
편집실 및 사회의 공적영역에 만연한 남성중심성을 체현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여성기자는 여전히  
전문적인 직업집단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거친 남성의 영역에서 일하는 기이한 존재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새로이 뉴스룸에 진입한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성중심적인  
언론계는 전통적인 여성적 가치와 남성적인 저널리즘 규범의 결합을 요구한다. 남성들이 구축한  
이상형 속에는 모순적인 여성성이 담겨있으며 이는 1970년대 이미 확립된 젠더 질서 또는 젠더에  
기반한 사회분업구조를 유키코자 하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언론인들에 의해서 구축된 선구자 또는 슈퍼우먼의 모델은 여성성에 대한 양가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편집국내의 지배적인 이상형에 대한 대응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여성에 대해  
가해졌던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해결방식은 여성들의 집합적인 행동·주장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나 공간이 거의 부재하였던 상황에서 남성적인 전문영역에 진입하였던 여성들이 기존의 젠더 질서와의 타협의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 원자료

조선일보

기자협회보(1970.1~1979.12).기자협회

신문평론(1970.1~1979. 12), 한국 언론재단

여성저널 1~4호, 여기자클럽

## 참고문헌

- 김영화(1993). *한국의 교육불평등: 고등교육 팽창의 과정과 결과*. 서울: 교육과학사
- 김해식(1994). *한국언론의 사회학*. 서울: 나남
- 박용규(1997). 일제하 여기자의 직업의식과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vol 41, pp5~40.
- 이만갑(1971). 여기자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여성저널* 2호 pp77~134
- 정진석(1995). *여기자*, 인물한국언론사, 나남, pp275-313
- 장명수(1970). 중견여기자는 왜 이리 드문가? *여성저널* 창간호 pp 44~50
- 주동황(1994).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이 신문산업의 변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표경희(1979). 이대생의 취업관 조사. 이화여대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vol 15, pp 76~94
- 표경희·안덕자(1971). 졸업반 여대생의 실태분석-서울시대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학생생활연구지도부, *학생생활연구*. Vol. 8, pp13~48
- 표경희·오인호(1974). 본교 졸업생의 취업동태에 관한 조사. 이화여대 학생생활지도연구소. *학생생활연구*. Vol 10, pp55~87
- 황경숙·오인호·표경희·안덕자·배승애·이기영 (1974). 본교 재학생 실태조사, 이화여대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 연구* 제 11권, pp1~57
- 황정미(2001).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1960~70년대 한국 부녀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Jorgenson, J. (2002). Engineering Selves: Negotiating Gender and identity in technical work.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Vol 15, No.3 pp350~380
- Lumsden, Linda(1995). "You're a Tough Guy, Mary: A First-Rate Newspaper Men-Gnder and Women Journalists in the 1920~30. *Journal of Mass Communicqion Quartely*, Vol. 72(4), pp913~922
- Melin-Higgins, Margareta (2004), Coping With Journalism: Gendered Newsroom Culture, in Marjan de Bruin & Karen Ross (eds), *Gender and Newsroom Cultures-Identity at Work*, pp 195-220.
- Steiner, Linda (1998). Newsroom Accounts of Power at Work, in Cynthia Carter, Gill Branston, Stuart Allan (eds). *News, Gender and Power*. New York. Routledge.